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승원 연구위원(jung@kdb.co.kr)

# I. 서론 Ⅲ.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 분석

## Ⅱ. 대출집중도의 의미 및 신용집중도 계산 방법 IV. 결론

이와 같은 한국의 산업별 신용배분 양상은 국가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부문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자원배분 기능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025. 10 제839호 3

## I. 서론

### □ 금융부문은 자원배분 기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 자원배분은 Levine(2005)<sup>1)</sup>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임
  - 산업별로 효율성 수준과 생산성 증가가 다른 경우, 이들이 높은 산업에 대해 금융중개기관이 대출 등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 부문별 신용배분 이슈는 최근 거시건전성과 관련하여 활발히 연구 중이며, 대개 신용 레버리지 지표가 사용되고, 부문 분류가 가계부문, 기업부문 등으로 큰 편

-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부문별 신용/명목GDP 비율) 지표를 사용하여, 신용붐이나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
  - Mian et al.(2017)은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나 중기적으로 하락시키며, 기업부채 증가는 가계부채와 같은 상승-하락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임
  - Müller·Verner(2024)는 기업부문을 교역부문·비교역부문 또는 6개 산업군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비교역부문과 가계에 집중된 신용붐은 이후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나, 교역부문에 집중된 신용붐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함
  - Andrieş et al.(2025)은 가계부문 및 비교역부문에 대한 대출은 은행 시스템 리스크와 (+) 관계이나, 기업부문 및 교역부문에 대한 대출은 은행 시스템 리스크와 (-) 관계임을 보임
  -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볼 때, 민간신용 레버리지, 가계 신용 레버리지 및 기업신용 레버리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 목표로 가계부채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음

1) Levine(2005)에 따르면, 금융중개기관·금융시장·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 금융시스템은 다섯 가지 기능인 ① 투자대상 관련 정보의 생산과 자본 배분, ② 기업 모니터링 및 기업 지배, ③ 위험의 거래·분산·관리 원활화, ④ 저축의 동원 및 풀링(pooling), ⑤ 재화·용역의 교환을 용이하게 함을 통해 물적 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 금융부문에 의한 자원배분 및 효율성 분석을 위해 대출집중도를 사용 가능

- 대출집중도는 은행 등이 대출을 통해 어떤 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됨

$$i\text{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 = \frac{i\text{산업에 대한 대출금}/\text{총대출금}}{i\text{산업의 명목GDP}/\text{전체명목GDP}} \quad (1)$$

- 위와 같은 대출집중도는, '해당 산업이 경제(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해당 산업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임
- 대출집중도가 1보다 크면 그 산업에 대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많은 대출이 이루어져서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음을 나타냄
- 한편, 산업별 대출집중도의 표준편차는 편중지원의 정도를 나타냄
- 위와 같은 대출집중도는 김종희(2018), 류창훈 외(2024), Bank of Korea(2024), 장태윤 외(2025) 등이 최근 사용하였으나, 아직 활용 사례가 많지는 않음
- 해외에서는 Zeile(1993), Jaramillo et al.(1993) 등이 차입금비중/부가가치비중 비율을 살펴보았으나, 최근 활용 사례를 찾기 어려움
- Nayyar(2017)가 인도 개발금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부문간 자원배분에 관한 이론적 근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sup>2)</sup>, 대출집중도를 활용할 수 있음

## □ 본고에서는 대출집중도의 의의를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등을 포함한 신용집중도를 소개하며, 이 두 지표를 사용하여 한국의 산업별 신용배분을 분석하고자 함

- 산업별 대출집중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일 때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생산성·이익률이 높거나 장래에 유망한 산업인 경우 1보다 높고 반대의 경우 1보다 낮은 것이 적절할 것임
- 직관적인 설명에 더하여,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정태적 관점 및 동태적 관점에서의 최적자원배분조건을 도출하고, 최적자원배분조건 아래에서 산업별 대출집중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집중도를 자원배분과 관련된 지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음

2) Nayyar(2017)는 "Surprisingly enough, the allocation of development finance across sectors does not reveal any underlying rationale or systematic approach."라고 하였음(p.212)

- 한편, 대출집중도는 은행 등의 대출금만을 반영하고 있어,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원천인 회사채를 포함하여 산업간 자원배분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은 회사채를 포함한 광의의 신용집중도<sup>3)</sup>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대출집중도와 함께 분석함

$$i\text{산업에 대한 신용집중도} = \frac{i\text{산업의 차입금/전산업의 차입금}}{i\text{산업의 명목GDP/전체명목GDP}} \quad (2)$$

- 위 식에서의 차입금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의 장·단기차입금, 회사채 및 유동성장기부채를 합한 것임<sup>4)</sup>

## II. 대출집중도의 의의 및 신용집중도 계산 방법

### 1. 대출집중도의 의의 : 최적자원배분과 대출집중도를 중심으로<sup>5)</sup>

#### □ 정태적 관점<sup>6)</sup>에서의 최적자원배분과 대출집중도

- 가정 : 단순화를 위해 한 가지 재화, 한 가지 생산요소(K) 등을 가정
- 경제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한 가지(Y)이고, 이는 생산함수가 각기 다른 N개의 공장 또는 산업에서 생산됨
- 경제전체의 총산출물(Y 또는 GDP)은, 다음과 같이 각 공장 또는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 $Y_i$ ,  $i = 1, \dots, N$ )의 합임

$$Y = \sum_{i=1}^N Y_i$$

- 
- 3) '신용집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신용(credit)'이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등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부채 성격의 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임
  - 4)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사용함에 따라, 장·단기차입금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뿐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등이 포함됨
  - 5) 이 소절은 정승원(2007)의 36~40쪽 내용을 참고·인용한 것임
  - 6) 정태적 관점의 분석은 현재의 산업별 생산성, 비교우위 등에 입각하여 자원배분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며, 뒤에 살펴볼 동태적 관점의 분석은 산업별로 다른 성장성, 생산성 증가, 비교우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절에서는 동태적 관점에서의 최적자원배분과 대출집중도와 관련하여 산업별로 다른 생산성 증가를 가정함

- 생산요소는 자본(K)만이 있으며,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고,  $\beta_i < 1$ 임

$$Y_i = A_i K_i^{\beta_i} \quad i = 1, \dots, N$$

- 위 식에서  $\beta_i$ 는 자본의 한계생산성/평균생산성 비율, 자본투입 증가에 따른 산출물 증가의 탄력성, 자본투입에 대한 수확체감의 정도를 의미함
- 각 산업은 자본재 구입자금을 모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조달함

○ 최적자원배분 조건 아래에서 다음의 식(3)이 성립하며, 도출과정은 아래와 같음<sup>7)</sup>

$$\frac{i\text{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j\text{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 = \frac{\beta_i}{\beta_j} \quad (3)$$

- 목적함수는  $Y = \sum_{i=1}^N Y_i = \sum_{i=1}^N A_i K_i^{\beta_i}$ 이며, 제약조건은  $\sum_{i=1}^N K_i = \bar{K}$ 임
- 최적화조건은 각 산업의 한계생산성이 같도록 생산요소를 배분하는 것임

$$\frac{dY_i}{dK_i} = \frac{dY_j}{dK_j} \quad \forall i \neq j$$

- $dY_i/dK_i = \beta_i A_i K_i^{\beta_i - 1} = \beta_i Y_i / K_i$ 이므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beta_i \frac{Y_i}{K_i} = \beta_j \frac{Y_j}{K_j} \quad \forall i \neq j$$

- 위 식의 양변의 분자와 분모를 경제전체의 총산출물(Y)과 총자본량( $\bar{K}$ )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beta_i \frac{Y_i/Y}{K_i/\bar{K}} = \beta_j \frac{Y_j/Y}{K_j/\bar{K}} \quad \forall i \neq j$$

-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frac{K_i/\bar{K}}{Y_i/Y} / \frac{K_j/\bar{K}}{Y_j/Y} = \frac{\beta_i}{\beta_j} \quad \forall i \neq j$$

- 자본재 구입자금을 모두 은행 대출로 조달하면, 각 산업의 산출물 비중 대비 자본스톡 비중은 산업별 대출집중도와 같음. 따라서, 위의 식(3)이 성립함

7)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라고 할 수 있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형 생산함수  $Y_i = A_i K_i^{\beta_i} L_i^{\alpha_i}$ 를 가정하여도 식(3)을 도출할 수 있음. 정승원(2007)의 36~37쪽을 참고

$$\frac{K_i/\bar{K}}{Y_i/Y} = \frac{i\text{산업에 대한 대출금/총대출금}}{i\text{산업의 GDP/전체명목GDP}} = i\text{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

- 식(3)이 의미하는 바는, 산업별로  $\beta_i$ 가 다른 경우  $\beta_i$ 가 큰 산업, 즉 평균생산성 대비 한계생산성이 높고, 자본투입 증가에 따른 산출물 증가의 정도가 크며 수확체감의 정도가 작은 산업의 대출집중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임

## □ 동태적 관점에서의 최적자원배분과 대출집중도

○ 가정 : 경제를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2기에 기술진보가 발생

- 1기의 생산함수는 앞의 생산함수와 같고, 2기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음

$$2\text{기의 생산함수} : Y_i^* = \gamma_i A_i K_i^{\beta_i} \quad i = 1, \dots, N$$

- $\gamma_i$ 는 2기에  $i$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진보를 나타내며, 1보다 크면 기술진보, 즉 생산성 증가를 의미함
- 단순화를 위해 2기의 생산요소 투입규모는 1기와 같고, 1기에 1기 및 2기의 생산요소 투입규모가 결정됨. 아울러 시간선택은 고려하지 않음

○ 최적자원배분 조건 아래에서 다음의 식(4)가 성립하며, 도출과정은 아래와 같음

$$\frac{i\text{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j\text{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 = \frac{(1+\gamma_i) \beta_i}{(1+\gamma_j) \beta_j} \quad (4)$$

- 목적함수는  $Y + Y^* = \sum_{i=1}^N Y_i + \sum_{i=1}^N Y_i^* = \sum_{i=1}^N (1+\gamma_i) A_i K_i^{\beta_i}$ , 제약조건은  $\sum_{i=1}^N K_i = \bar{K}$ 임
- 최적화조건은 각 산업의 1기 및 2기 한계생산물의 합이 같도록 생산요소를 배분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음

$$\frac{d(Y_i + Y_i^*)}{dK_i} = (1+\gamma_i) \beta_i \frac{Y_i}{K_i} = \frac{d(Y_j + Y_j^*)}{dK_j} = (1+\gamma_j) \beta_j \frac{Y_j}{K_j} \quad \forall i \neq j$$

- 위의 최적화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frac{K_i/\bar{K}}{Y_i/Y} / \frac{K_j/\bar{K}}{Y_j/Y} = \frac{(1+\gamma_i) \beta_i}{(1+\gamma_j) \beta_j} \quad \forall i \neq j$$

- ' $\frac{K_i/\bar{K}}{Y_i/Y} = i\text{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 '이므로, 위의 식(4)가 성립함

- 식(4)가 의미하는 바는, 산업별로 생산성증가율이 다른 경우 생산성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정태적 관점에서 최적인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동태적 관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임

□ 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 대출집중도는 금융부문에 의한 자원배분 양상을 파악하고 자원배분 효율성과 관련된 분석을 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 가능<sup>8)</sup>

○ 대출집중도는 지표의 값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쉽고, 계산하기도 쉬움

○ 그 용도에 있어, 중앙은행 등이 경제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금융부문에 의한 신용배분 양상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개별 금융기관도 자신의 산업별 대출잔액 자료를 사용하여 대출집중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산업별 익스포저 관리 등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시장실패 보완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산업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신용 레버리지 지표와 달리 대출집중도는 산업간 신용배분에 관한 상대적 개념의 지표여서 신용 총량의 증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2. 신용집중도 계산 방법

□ 신용집중도는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 제공하는 차입금의존도, 총자본투자효율 등을 사용하여 계산 가능

$$\begin{aligned} \text{○ } i\text{산업에 대한 신용집중도} &= \frac{i\text{산업의 차입금}/\text{전산업의 차입금}}{i\text{산업의 명목GDP}/\text{전체명목GDP}} \\ &= \frac{i\text{산업의 차입금}/i\text{산업의 명목GDP}}{\text{전산업의 차입금}/\text{전체명목GDP}} \end{aligned}$$

- 위 식에서, 차입금 = 장·단기차입금 + 회사채 + 유동성장기부채

8)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 지표는 ①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같은 실물경제지표와 ② 대출집중도와 같은 금융부문 데이터를 사용하는 지표로 대별할 수 있음. 기존의 다양한 분석지표에 관해 정승원(2007)의 27~34쪽을 참고할 수 있음

○ 차입금의존도, 총자본투자효율, 총자본(말잔), 총자본(평균)을 사용한 계산식 :

$$i\text{산업에 대한 신용집중도} = \frac{\frac{i\text{산업의 차입금의존도}}{i\text{산업의 총자본투자효율}} \times \frac{i\text{산업의 총자본(기말)}}{i\text{산업의 총자본(평균)}}}{\frac{\text{전산업의 차입금의존도}}{\text{전산업의 총자본투자효율}} \times \frac{\text{전산업의 총자본(기말)}}{\text{전산업의 총자본(평균)}}} \quad (5)$$

- 차입금의존도 및 총자본투자효율의 정의 및 식(5)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기말)}}{\text{총자본(기말)}} \times 100$

· 총자본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본(평균)}} \times 100$

· 따라서,

$$\begin{aligned} \frac{\text{차입금의존도}}{\text{총자본투자효율}} &= \frac{\text{차입금(기말)}}{\text{총자본(기말)}}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본(평균)}} = \frac{\text{차입금(기말)}}{\text{총자본(기말)}} \times \frac{\text{총자본(평균)}}{\text{부가가치}} \\ &= \frac{\text{차입금(기말)}}{\text{부가가치}} \times \frac{\text{총자본(평균)}}{\text{총자본(기말)}} \end{aligned}$$

· 따라서,  $\frac{\text{차입금(기말)}}{\text{부가가치}} = \frac{\text{차입금의존도}}{\text{총자본투자효율}} \times \frac{\text{총자본(기말)}}{\text{총자본(평균)}}$  이므로, 식(5)가 성립

○ 대출집중도와 비교하면, 신용집중도는 포함되는 신용의 범위가 넓고 하위분류 산업까지 계산할 수 있으나, 대상 기업은 제한됨

- 신용집중도는 대출금뿐 아니라 회사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지표임
- 대출집중도는 이용 가능한 통계의 산업분류 수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및 제조업 중분류 수준이어서 29개 산업<sup>9)</sup>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 있으나, 신용집중도는 기업경영분석 통계가 하위분류 산업에 대해서도 제공되어 이들 산업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음<sup>10)</sup>
- 대출집중도 계산에 사용되는 대출금 통계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포함되나,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제외되며, 통계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업·산업이 제외됨<sup>11)</sup>

9) 대출집중도 분석대상 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해서는 다음 절 및 <부표 1>을 참고

10) 아울러, 신용집중도는 중화학공업·경공업, 기술수준별 분류 등 특수분류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음.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산업분류에 관해서는 한국은행(2024)을 참고

11)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작성범위 및 대상에 관해서는 한국은행(2024)의 19쪽을 참고



## Ⅲ.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 분석

### 1. 분석대상

#### □ 분석대상 기간 및 분석대상 산업

- 대출집중도는 2010~2024년 기간에 대해서, 신용집중도는 2010~2023년 기간에 대해서 계산<sup>12)</sup>
- 대출집중도 분석대상 산업은 총 29개 산업으로서, 대출집중도 계산에 사용되는 산업별 대출금 통계와 경제활동별 GDP 통계의 산업분류를 고려하여 결정
  -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보험업'은 자금중개를 하는 산업임을 고려하여 제외<sup>13)</sup>
  - 신용집중도는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대상이 아닌 2개 산업을 제외한 27개 산업에 대해 계산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체가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대상이 아님
    - 공공행정·기타서비스의 경우, 기타서비스 중 일부가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 대상이나 비중이 큰 공공행정이 작성대상이 아니어서 제외
    - 수도·하수·폐기물 산업의 경우, 수도 산업이 기업경영분석 통계 작성대상이 아니지만 수도의 비중이 작아서<sup>14)</sup> 신용집중도 계산 대상에 포함

〈표 1〉 대출집중도 분석대상 산업

| 1차 산업(2개) | 제조업(13개)                                                                                       | 기타 서비스업 등(14개)                                                                                                                                           |
|-----------|------------------------------------------------------------------------------------------------|----------------------------------------------------------------------------------------------------------------------------------------------------------|
| 농림어업, 광업  |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정밀기기,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 전기·가스·증기, 수도·하수·폐기물,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sup>1)</sup> , 예술·스포츠·여가, 공공 행정·기타서비스 <sup>1)</sup> |

주 : 1) 보건·사회복지 및 공공행정·기타서비스 산업은 신용집중도 분석대상에서 제외  
 2) 위의 산업명은 편의상 간략히 표기한 것이며, 자세한 것은 <부표 1>을 참고

12) 신용집중도 계산에 사용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현재 2023년 자료까지만 구할 수 있음

13) 금융 및 보험업은 식(1)의 총대출금과 전체명목GDP에 포함되지 않음

14) 2022년 투입산출표 통계에 따르면, 수도·하수·폐기물 산업 중 수도의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14%임

- 한편, 총자본투자효율이 음의 값인 2020년 석유제품 제조업<sup>15)</sup>과 2022년 전기·가스·증기 산업<sup>16)</sup>은 이상치(outlier)로 보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2014년 석유제품 제조업의 경우, 대출집중도 분석대상에는 포함하나 신용집중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함<sup>17)</sup>

## □ 대출집중도 계산 대상 대출금

- 대출집중도는 한국의 '예금은행 대출금'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금'과 이 둘의 합계인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에 대해 계산<sup>18)</sup>
- 예금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 포함되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수익증권 제외),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sup>19)</sup> 및 우체국예금계정이 포함됨
- 대출금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산업별 대출금 통계 기준으로 원화대출금 및 기업어음 매입을 의미하며, 외화대출금 등은 제외됨<sup>20)</sup>

- 
- 15)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유업계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 이에 따라 석유제품 제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이 -0.61%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신용집중도를 계산하면 -26.29가 됨. 대출집중도는 (+) 값으로 계산되나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는데,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의 경우 2019년 0.39에서 2020년 1.69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0.41로 하락함
- 16) 2022년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 이에 따라 전기·가스·증기 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이 -0.52%였으며, 신용집중도는 -50.22로 계산됨.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는 전년의 1.30에서 17.89로 급등하였으며, 2023년에는 1.22로 하락함
- 17) 2014년에 미국의 셰일가스·오일 개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정유업계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총자본투자효율이 전년의 7.22%에서 2.64%로 급락하고, 신용집중도는 전년의 2.13에서 6.52로 상승함. 2015년에는 총자본투자효율이 12.85%로 상승하고, 신용집중도는 1.28로 하락함. 한편, 대출집중도는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2014년 0.23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데, 이는 명목GDP 비중이 2013년 1.21%에서 2014년 1.05%로 하락하였으나 대출금 비중도 2013년 0.27%에서 2014년 0.25%로 하락하였기 때문임. 2015년에는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가 0.22로 소폭 하락함
- 18) 2024년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은 1,962조원(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대출금 151조원 포함)이며, 이 가운데 예금은행이 1,423조원으로 72.5%를 차지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539조원으로 27.5%를 차지함
- 19) 신용협동기구로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있음
- 20) 2024년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금 2,032조원 중 산업별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는 외화대출 등은 70조원으로 그 비중이 작음

## 2.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 계산 결과

### □ 부동산업, 농림어업 등의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가 높은 수준<sup>21)</sup>

-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는 2024년 기준으로 <그림 1>과 같이 부동산업, 농림어업, 섬유·가죽제품, 숙박·음식점업, 목재·종이, 비금속광물제품, 도소매업,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높고, 광업, 전기·가스·증기 산업은 회사채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커서 신용집중도(2023년 기준)가 높은 수준임
- 부동산업은 최근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와 신용집중도가 각각 3.47 및 7.61로 분석대상 산업 중 가장 높고 신용집중도가 대출집중도보다 훨씬 높음
  - 예금취급기관 중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가 4.47로, 예금은행 대출집중도 3.13보다 높음
- 농림어업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가 5.59로 분석대상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며,<sup>22)</sup> 예금은행 대출집중도 또한 1.49로서 높은 수준임
  - 신용집중도는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보다는 낮지만 2.28로 높음
- 제조업은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가 0.88인 가운데 경공업이 1.52로 높고 중화학공업이 0.79로 낮음<sup>23)</sup>
  - 경공업에 속하는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 음식료품 및 기타 제조업의 대출집중도가 모두 높은 편임

21) 각 산업의 2024년 대출집중도 및 2010~2024년 평균 대출집중도와 2023년 신용집중도 및 2010~2023년 평균 신용집중도는 <부표 2>를 참고

22) 이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포함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향으로 보임. 2024년말 현재 여신(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매입어음) 잔액을 보면 동 상호금융이 396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외에 새마을금고 184조원, 신용협동조합 107조원, 상호저축은행 98조원 등임

23) 경공업/중화학공업 분류와 관련하여 대출집중도의 경우, 경공업에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 기타 제조업이 포함되며, 나머지 제조업 업종은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함. 이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분류와 일부 다름.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경우, 위의 목재·종이 산업에 포함되는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기타 제조업에 포함되는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을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함. 본고에서는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신용집중도 등 지표의 값으로 동 통계의 분류기준에 따른 값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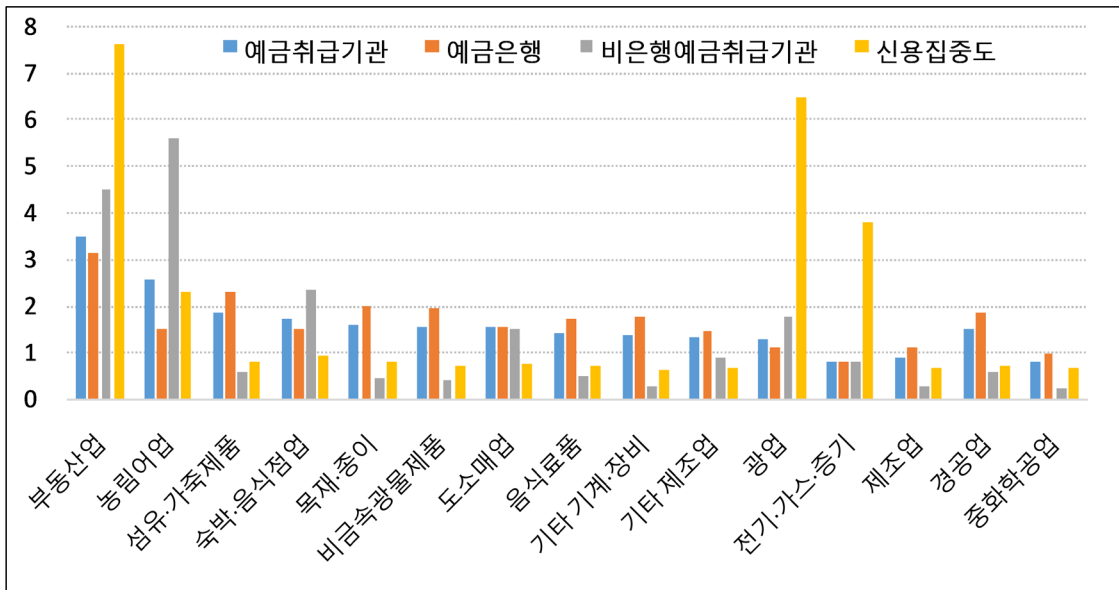
- 제조업의 신용집중도는 0.67로 대출집중도에 비해 낮으며, 경공업이 중화학 공업에 비해 높으나 차이가 대출집중도에 비해 작음

○ 광업과 전기·가스·증기 산업은 신용집중도가 각각 6.46 및 3.80으로 분석대상 산업 중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음

- 이들 산업의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2023년)가 각각 0.96 및 1.22임에도 신용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은 회사채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크기 때문임
- 이들 산업의 ‘장·단기차입금, 회사채 및 유동성장기부채’ 합계<sup>24)</sup> 중 회사채 비중은 2023년 각각 56.5%, 51.3%로서 전산업 17.1%에 비해 매우 큼
- 이러한 사례는 대출집중도와 함께 신용집중도를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함

○ 부동산업 이외의 서비스업 가운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가 각각 1.72 및 1.52로 높으나, 신용집중도는 최근 1 미만임

〈그림 1〉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 상위 10개 산업 등의 최근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



주 : 1) 대출집중도는 2024년 값이며, 신용집중도는 2023년 값임

2) 부동산업부터 기타 제조업까지는 2024년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가 큰 순서임

3) 광업 및 전기·가스·증기 산업은 신용집중도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산업이어서 포함

24) 이는 앞의 차입금의존도 계산식에서 분자인 차입금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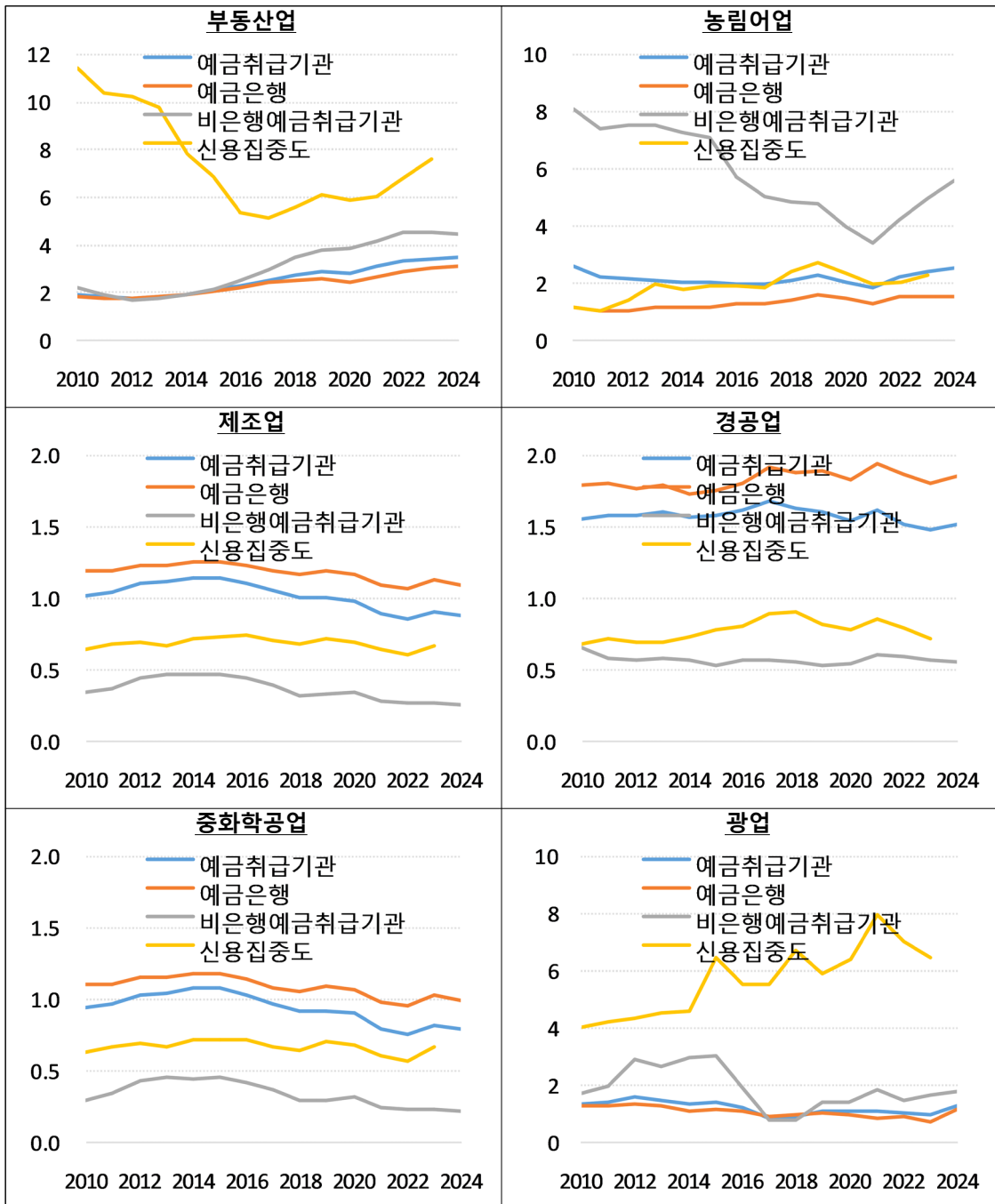
□ 주요 산업의 대출집중도 등의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부동산업의 대출 집중도 지속 상승이 두드러짐

-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집중도 상승폭이 컸음
  - 부동산업에 대한 신용집중도는 2018년 이후 급격히 상승
- 농림어업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신용집중도도 상승
- 제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는 2015년 이후 하락 추세인데, 경공업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화학공업의 경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 광업의 경우, 2024년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1.28)가 2010~2024년 평균(1.21)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신용집중도는 2021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인 후 최근 다소 하락
-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대출집중도가 상승하여 2021년 예금취급기관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28 및 2.9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
  - 신용집중도는 비록 수준은 낮지만 대출집중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임
- 도소매업의 경우, 대출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2024년 1.52를 기록한 가운데 상승폭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컸음
  - 반면, 신용집중도는 2017년 이후 하락 추세이며 1 미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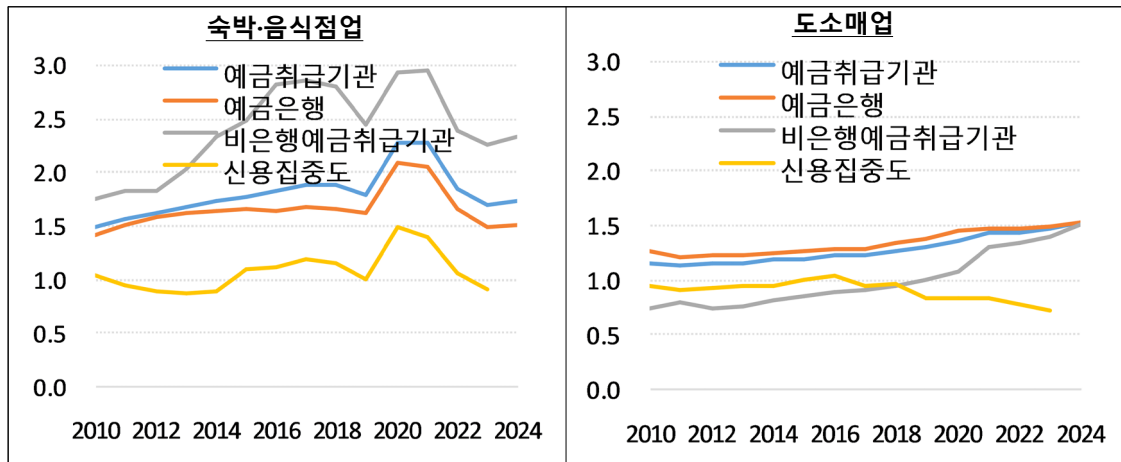
□ 최근 해외 연구결과를 보면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의 대출집중도 상승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움

- Müller·Verner(2024)와 Andrieş et al.(2025)의 실증분석결과, 부동산·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으로 구성된 비교역부문 중심의 신용붐은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하락을 경험하거나 은행 시스템리스크와 (+) 관계로 나타남

〈그림 2〉 주요 산업의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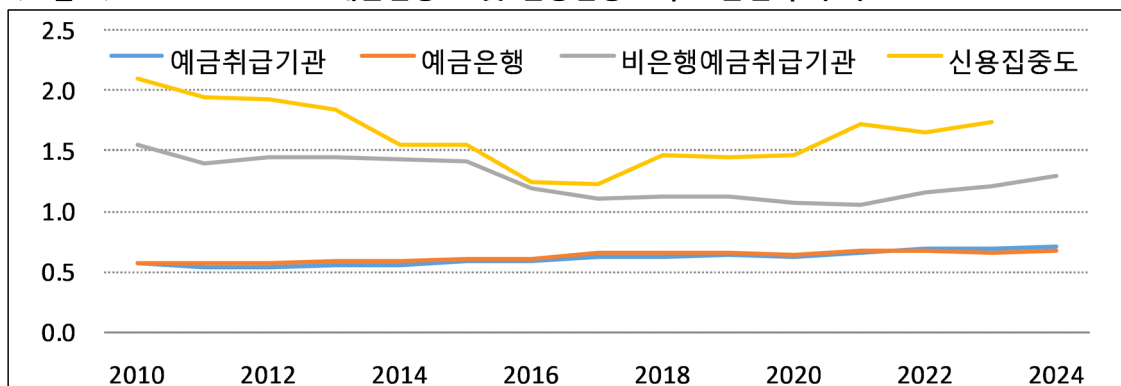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산업의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 추이(계속)



#### □ 편중지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최근 상승 추세

- 예금취급기관 및 예금은행 대출집중도의 표준편차는 낮은 수준이나 완만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의 표준편차는 수준은 높지만 2021년까지 하락 하였으며, 2022~2024년에는 상승
- 신용집중도의 표준편차는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7년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보임

〈그림 3〉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의 표준편차 추이



### 3. 산업 성과지표와 비교

□ 정태적 관점에서 금융부문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별 대출집중도·신용집중도와 산업별 이익률·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

○ 이익률·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대출집중도가 높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익률 지표로는 경영자산영업이익률을 사용

- 경영자산영업이익률은 순수 영업활동의 결과에 의한 경영성과인 영업이익을 영업활동에 직접 활용된 경영자산과 비교하는 이익률 지표임<sup>25)</sup>

$$\text{경영자산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 + \text{투자자산})] \text{의 평균}}$$

- 산업별 경영자산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 제공하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경영자산회전율의 곱으로 계산함<sup>26)</sup>

○ 생산성 지표로는 부가가치 생산성과 관련된 경영자산투자효율을 사용

- 경영자산투자효율은 직접영업활동에 사용된 경영자산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생산성 지표임

$$\text{경영자산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 + \text{투자자산})] \text{의 평균}}^{27)}$$

- 산업별 경영자산투자효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 제공하는 총자본투자효율, 총자산회전율 및 경영자산회전율을 사용하여 계산함. 즉, '총자본투자효율/총자산회전율×경영자산회전율'로 계산함<sup>28)</sup>

25) 분자에 당기순이익 등을 사용하는 이익률 지표와 비교하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이 아닌 이자지급비용, 환차손, 특별손익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음. 분모에 총자산을 사용하는 지표와 비교하면, 건설중인 자산 및 투자자산과 같이 경영활동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함

26)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며, '경영자산회전율=매출액/경영자산(평균)'이므로, '매출액영업이익률×경영자산회전율=영업이익/경영자산(평균)=경영자산영업이익률'임. 한편, 농림어업(농업과 어업으로 구성)과 같이 몇 개 산업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는 경우, 가중치 관련 경영자산(평균)은 '매출액/경영자산회전율'로 계산함

27) '부가가치=인건비+영업잉여+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이자비용'이며, '영업잉여=영업손익+대손상각비-이자비용'임

28)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평균)'이며,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평균)'이고, '경영



□ 대출집중도·신용집중도는 이익률·생산성과 (-)의 상관관계를 보임<sup>29)</sup>

- 2010~2023년 평균 경영자산영업이익률과 대출집중도 등의 상관계수를 보면 모두 (-) 값이며, 예금은행 대출집중도는 (-)의 상관관계 정도가 약함
- 2010~2023년 평균 경영자산투자효율과 대출집중도 등의 상관계수를 보면 모두 (-) 값이며, 예금취급기관 및 예금은행의 대출집중도는 (-)의 상관관계 정도가 이익률 관련에 비해 강함

〈표 2〉 대출집중도 등과 이익률 및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의 상관계수(기간 중 평균 기준)  
(단위 : -1~1)

| 구 분       | 대출집중도  |        |           | 신용집중도  |
|-----------|--------|--------|-----------|--------|
|           | 예금취급기관 | 예금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
| 경영자산영업이익률 | -0.340 | -0.123 | -0.593    | -0.522 |
| 경영자산투자효율  | -0.507 | -0.449 | -0.337    | -0.5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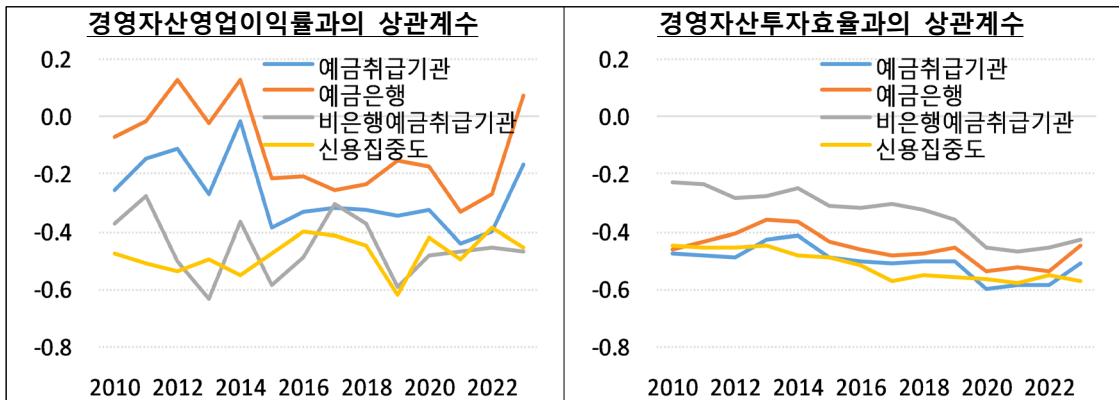
주 : 2010~2023년 평균값들 사이의 상관계수임

- 연도별 대출집중도 등과 이익률 및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의 상관계수 추이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대부분 (-) 값이며 2020년 전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 후 최근 상승하였음
- 이익률과의 상관계수는 변동성이 큰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의 경우 2021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2~2023년에는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 예금은행 대출집중도와 이익률 지표의 상관계수는 0.075로 비록 작지만 (+) 값을 기록
-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와의 상관계수는 큰 차이가 없이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대출집중도의 경우 최근 소폭 상승하였음

자산회전율=매출액/경영자산(평균)이며, 총자본과 총자산은 같은 값이므로, '총자본투자효율/총자산회전율×경영자산회전율=[부가가치/총자본(평균)]×[총자산(평균)/매출액]×[매출액/경영자산(평균)]=부가가치/경영자산(평균)=경영자산투자효율'임

29) 각 산업의 2023년 경영자산영업이익률·경영자산투자효율 및 2010~2023년 평균 경영자산영업이익률·경영자산투자효율은 <부표 3>을 참고

〈그림 4〉 연도별 대출집중도 등과 이익률 및 부가가치 생산성 지표의 상관계수 추이



□ 동태적 관점에서 금융부문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별 대출집중도·신용집중도와 산업별 생산성증가율·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

○ 생산성증가율·성장률이 높은 산업에 대출집중도가 높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생산성증가율 지표로는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사용
  -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성장회계에 의해 계산되며,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 증가임
  -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증가율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제공하는 2010~2022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몇 개의 산업을 통합하는 경우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통계의 전년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였음<sup>30)</sup>
  - 기타서비스의 경우, 대출집중도 자료에서는 공공행정·기타서비스 산업에 포함되나, 한국생산성본부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자료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 산업에 포함되어 제공되는데, 여기에서는 별도의 조정이 없이 그대로 사용함

30) 예를 들어,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자료는 '자동차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대한 수치를 제공함. 중분류 기준 투입산출표에서 '자동차 제조업', '선박 제조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구할 수 있음. 한편, 2010년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경우 2009년 투입산출표 통계가 없어서 2010년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사용하였음

- 성장률 지표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의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을 사용
  -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실질경제성장률과 부합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산업별 성장률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2010~2024년 자료를 사용
  - 한편, 성장률 관련 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상치에 추가하여 2021년 석유제품 산업의 해당 수치를 이상치로 보고 제외함<sup>31)</sup>

□ 대출집중도·신용집중도는 생산성증가율·성장률과 대부분 (-)의 상관관계를 보임<sup>32)</sup>

- 2010~2022년 평균 총요소생산성증가율과 대출집중도 등의 상관계수를 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집중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 값이며, 예금은행 대출집중도는 (-)의 상관관계 정도가 강함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의 경우 상관계수가 0.146으로 비록 작지만 (+) 값인 것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집중도가 높은 농림어업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높은 영향이 큼
- 2010~2024년 평균 실질부가가치증가율과 대출집중도 등의 상관계수를 보면 모두 (-) 값이며, 큰 차이가 없음

〈표 3〉 대출집중도 등과 생산성증가율 및 성장률 지표의 상관계수(기간 중 평균 기준)

(단위 : -1~1)

| 구 분       | 대출집중도  |        |           | 신용집중도  |
|-----------|--------|--------|-----------|--------|
|           | 예금취급기관 | 예금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0.392 | -0.524 | 0.146     | -0.250 |
| 실질부가가치증가율 | -0.369 | -0.301 | -0.308    | -0.308 |

주 : 1)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경우, 2010~2022년 평균값들 사이의 상관계수임

2)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의 경우, 대출집중도는 2010~2024년 평균값들 사이의 상관계수이며, 신용집중도는 2010~2023년 평균값들 사이의 상관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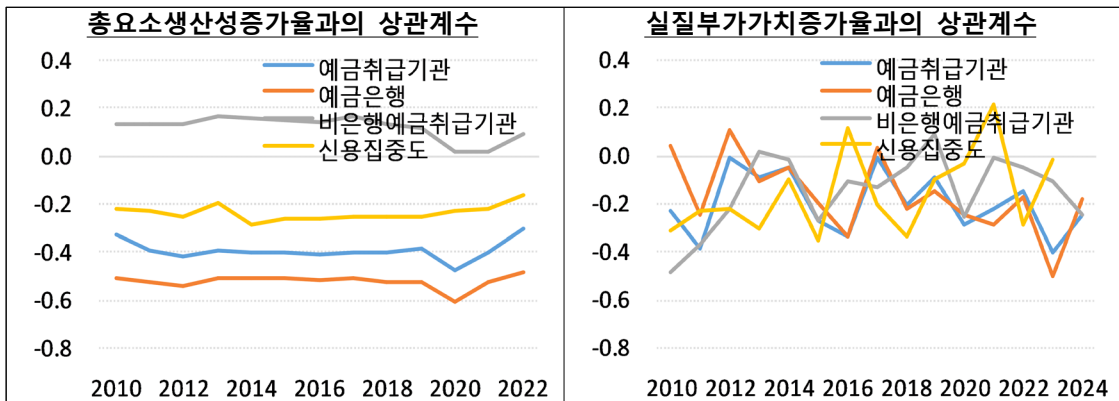
- 연도별 대출집중도 등과 생산성증가율 및 성장률 지표의 상관계수 추이를 보면, <그림 5>와 같이 대체로 (-) 값이며,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지 않음

31) 석유제품 산업의 실질부가가치는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5.2% 감소하고,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194.9% 증가하여,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의 경우 2020년뿐 아니라 2021년도 이상치로 봄

32) 각 산업의 2022년 및 2010~2022년 평균 총요소생산성증가율과 2024년 및 2010~2024년 평균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부표 3>을 참고

- 중요소생산성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 값을 유지한 반면, 기타 대출집중도와 신용집중도는 지속적으로 (-) 값을 기록
- 실질부가가치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변동성이 큰 가운데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의 경우도 대부분 (-) 값을 기록

〈그림 5〉 연도별 대출집중도 등과 생산성증가율 및 성장률 지표의 상관계수 추이



## IV. 결론

### □ 한국의 산업별 신용배분 양상을 보면 국가경제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본고에서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대출금·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 지표를 사용하여 산업간 자원배분 양상을 파악하고,
  - 이를 정태적 효율성 관련 지표인 이익률 및 부가가치 생산성 수준과 동태적 효율성 관련 지표인 생산성증가율 및 성장률과 비교하였음
- 그 결과, 부동산업, 농림어업 등의 대출·신용집중도가 높았으며, 대출·신용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대체로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지표가 낮았는데, 이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것과는 상이한 양상임

- 특히, 부동산업이 대출·신용집중도가 가장 높고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익률 등이 높지 않음
- 참고로, 부동산업을 제외하여도 상관계수가 큰 변화 없이 대체로 (-) 값임<sup>33)</sup>

○ 아울러,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의 대출집중도 상승과 관련하여, 이들 산업으로 구성된 비교역부문의 신용분은 이후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이나 은행 시스템리스크 증가와 관계될 수 있다는 해외 실증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 금융부문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원배분 기능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위와 같은 산업간 신용배분은 적절한 리스크관리 하에서의 이윤극대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상업금융기관의 영업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sup>34)</sup>
  - 차입 수요가 있는 기업과 자금 공급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은행이 상호 작용하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은행 창구’에서 산업간 신용배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은행의 주요 관심사는 채권보전이며, 차입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이익률, 생산성, 성장률 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금융부문의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자원배분 기능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들 수 있음. 정책금융기관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이 국가경제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완하는 역할을

33) 부동산업을 제외한 경우, 분석대상 기간 중 평균 예금취급기관 대출집중도와 이익률, 부가가치 생산성, 생산성증가율 및 성장률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250, -0.450, -0.362, -0.410이며, 신용집중도와 이들 효율성 지표의 상관계수는 각각 -0.499, -0.494, -0.207, -0.472임

34) 산업자금, 수출입금융, 중소기업대출 등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있으나, 상업은행이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국내은행의 원화 기업자금대출금 1,305조원 가운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7%, 2.1%, 18.5% 수준임. 2023년말 예금취급기관 대출금 1,943조원 대비 이들 은행의 원화 기업자금대출금과 외화대출금의 합계액의 비율은 각각 7.3%, 4.2%, 12.7% 수준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산업간 신용배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금 공급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음

- 시중은행 등 상업금융기관도 금융시스템의 국가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여 산업별 익스포저 관리에 있어서 대출집중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대출·신용집중도, 효율성 관련 지표 등과 같은 정보의 생산·확산은 산업간 신용배분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음
- 끝으로, 앞서와 같은 산업간 신용배분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본고에서는 산업간 신용배분 양상과 효율성 지표의 상관관계만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은 하지 않았음
- 향후, 금융기관의 산업간 신용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한편, 산업간 신용배분과 관련하여 대출·신용집중도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등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대출·신용집중도가 상승할 수 있음
- 대출·신용집중도는 분모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따라서, 일시적 충격이 발생할 때 해당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으면, 분모 값이 감소하여 대출·신용집중도가 급등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앞서의 분석에서 이상치로 제외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둘째, 산업별로 자금조달 방법의 구성이 다르며, 대출집중도와 신용집중도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광업, 전기·가스·증기 산업 등과 같이 회사채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큰 경우, 대출집중도에 비해 신용집중도가 매우 높음
- 이를 고려하면 대출집중도와 함께 포괄 범위가 넓은 신용집중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금융기관의 특성이 산업간 신용배분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면,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은 농림어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매우 클 수 있음

〈부표 1〉 대출집중도 분석대상 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내용

| 구 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 고           |
|-------------|------------------------------------------------------------------------------------------------|---------------|
| 농림어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
| 광업          | 광업                                                                                             |               |
| 음식료품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
| 섬유·가죽제품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목재·종이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석유제품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화학제품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비금속광물제품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1차금속        | 1차 금속 제조업                                                                                      |               |
| 금속가공제품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전자·정밀기기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전기장비        | 전기장비 제조업                                                                                       |               |
| 기타 기계·장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운송장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기타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전기·가스·증기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 수도·하수·폐기물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건설업         | 건설업                                                                                            |               |
| 도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
| 운수·창고업      | 운수 및 창고업                                                                                       |               |
| 숙박·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
| 정보통신업       | 정보통신업                                                                                          |               |
| 부동산업        | 부동산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사업지원서비스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교육서비스       | 교육 서비스업                                                                                        |               |
| 보건·사회복지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신용집중도 분석대상 제외 |
| 예술·스포츠·여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공공행정·기타서비스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신용집중도 분석대상 제외 |

주 : 1) '금융 및 보험업'은 본고의 분석대상에서 제외

2) 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은 제조업 내 하위업종의 경우 중분류 기준이며, 기타의 경우 대분류 기준임

〈부표 2〉

## 산업별 대출집중도 및 신용집중도

| 구 분         | 대출집중도  |      |      |      |               |      | 신용집중도 |      |
|-------------|--------|------|------|------|---------------|------|-------|------|
|             | 예금취급기관 |      | 예금은행 |      | 비은행<br>예금취급기관 |      |       |      |
|             | 2024   | 평균   | 2024 | 평균   | 2024          | 평균   | 2023  | 평균   |
| 농림어업        | 2.54   | 2.15 | 1.49 | 1.31 | 5.59          | 5.83 | 2.28  | 1.93 |
| 광업          | 1.28   | 1.21 | 1.11 | 1.05 | 1.76          | 1.90 | 6.46  | 5.66 |
| 음식료품        | 1.41   | 1.53 | 1.73 | 1.77 | 0.47          | 0.57 | 0.72  | 0.80 |
| 섬유·가죽제품     | 1.86   | 1.76 | 2.30 | 2.08 | 0.57          | 0.43 | 0.80  | 0.87 |
| 목재·종이       | 1.58   | 1.66 | 1.98 | 1.96 | 0.44          | 0.41 | 0.78  | 0.87 |
| 석유제품        | 0.52   | 0.32 | 0.67 | 0.36 | 0.11          | 0.16 | 0.91  | 1.35 |
| 화학제품        | 1.03   | 0.99 | 1.30 | 1.17 | 0.25          | 0.24 | 0.87  | 0.74 |
| 비금속광물제품     | 1.53   | 1.54 | 1.92 | 1.82 | 0.39          | 0.41 | 0.72  | 0.79 |
| 1차금속        | 1.00   | 1.22 | 1.25 | 1.43 | 0.27          | 0.32 | 0.78  | 1.04 |
| 금속가공제품      | 1.06   | 1.39 | 1.35 | 1.67 | 0.22          | 0.23 | 0.64  | 0.82 |
| 전자·정밀기기     | 0.32   | 0.39 | 0.39 | 0.45 | 0.11          | 0.13 | 0.63  | 0.38 |
| 전기장비        | 0.94   | 0.87 | 1.18 | 1.03 | 0.23          | 0.22 | 0.77  | 0.80 |
| 기타 기계·장비    | 1.36   | 1.65 | 1.74 | 1.95 | 0.27          | 0.41 | 0.62  | 0.76 |
| 운송장비        | 0.74   | 1.20 | 0.88 | 1.27 | 0.31          | 0.97 | 0.43  | 0.72 |
| 기타 제조업      | 1.30   | 1.31 | 1.45 | 1.38 | 0.87          | 1.06 | 0.65  | 0.58 |
| 전기·가스·증기    | 0.78   | 0.80 | 0.78 | 0.81 | 0.77          | 0.74 | 3.80  | 2.83 |
| 수도·하수·폐기물   | 1.03   | 1.10 | 1.27 | 1.28 | 0.33          | 0.34 | 0.68  | 0.98 |
| 건설업         | 1.05   | 1.06 | 0.60 | 0.77 | 2.35          | 2.21 | 0.54  | 0.59 |
| 도소매업        | 1.52   | 1.28 | 1.52 | 1.34 | 1.51          | 1.00 | 0.73  | 0.90 |
| 운수·창고업      | 0.55   | 0.72 | 0.58 | 0.76 | 0.46          | 0.54 | 1.15  | 1.61 |
| 숙박·음식점업     | 1.72   | 1.80 | 1.51 | 1.65 | 2.33          | 2.40 | 0.91  | 1.07 |
| 정보통신업       | 0.47   | 0.39 | 0.56 | 0.44 | 0.19          | 0.19 | 0.49  | 0.49 |
| 부동산업        | 3.47   | 2.52 | 3.13 | 2.35 | 4.47          | 3.07 | 7.61  | 7.49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0.45   | 0.38 | 0.47 | 0.39 | 0.40          | 0.33 | 0.65  | 0.51 |
| 사업지원서비스     | 0.34   | 0.31 | 0.31 | 0.31 | 0.41          | 0.32 | 0.36  | 0.31 |
| 교육서비스       | 0.18   | 0.17 | 0.18 | 0.17 | 0.17          | 0.13 | 0.42  | 0.49 |
| 보건·사회복지     | 0.43   | 0.49 | 0.52 | 0.56 | 0.18          | 0.21 | -     | -    |
| 예술·스포츠·여가   | 1.05   | 1.06 | 1.06 | 1.04 | 1.04          | 1.12 | 1.16  | 1.45 |
| 공공행정·기타서비스  | 0.29   | 0.54 | 0.23 | 0.36 | 0.44          | 1.41 | -     | -    |
| 제 조 업       | 0.88   | 1.02 | 1.09 | 1.18 | 0.26          | 0.36 | 0.67  | 0.68 |
| 경 공 업       | 1.52   | 1.58 | 1.85 | 1.82 | 0.56          | 0.57 | 0.72  | 0.78 |
| 중화학공업       | 0.79   | 0.93 | 0.99 | 1.08 | 0.21          | 0.33 | 0.66  | 0.67 |

주 : 1) 평균은 대출집중도의 경우 2010~2024년, 신용집중도의 경우 2010~2023년 기준임

2) 평균 계산시 이상치는 제외



〈부표 3〉

산업별 성과지표

(단위 : %)

| 구 분         | 정태적 효율성 관련    |      |              |       | 동태적 효율성 관련    |      |               |       |
|-------------|---------------|------|--------------|-------|---------------|------|---------------|-------|
|             | 경영자산<br>영업이익률 |      | 경영자산<br>투자효율 |       | 총요소생산성<br>증가율 |      | 실질부가가치<br>증가율 |       |
|             | 2023          | 평균   | 2023         | 평균    | 2022          | 평균   | 2024          | 평균    |
| 농림어업        | 0.52          | 2.36 | 10.69        | 14.33 | 0.43          | 0.36 | 0.64          | -0.20 |
| 광업          | 1.67          | 2.08 | 8.73         | 9.61  | 0.15          | 0.14 | -7.29         | -3.37 |
| 음식료품        | 5.59          | 6.30 | 25.40        | 25.70 | 0.10          | 0.09 | 3.62          | 3.78  |
| 섬유·가죽제품     | 6.08          | 6.11 | 21.35        | 23.24 | 0.13          | 0.12 | 1.85          | -1.27 |
| 목재·종이       | 3.96          | 4.86 | 22.78        | 24.32 | 0.14          | 0.13 | 0.73          | 0.32  |
| 석유제품        | 7.28          | 7.45 | 13.76        | 13.57 | 0.01          | 0.01 | 4.50          | -2.62 |
| 화학제품        | 4.00          | 8.34 | 18.57        | 24.57 | 0.10          | 0.10 | 5.45          | 2.81  |
| 비금속광물제품     | 6.20          | 6.86 | 21.59        | 21.93 | 0.12          | 0.12 | -1.90         | 0.58  |
| 1차금속        | 5.11          | 6.22 | 17.43        | 17.98 | 0.06          | 0.07 | 0.78          | 0.43  |
| 금속가공제품      | 5.54          | 5.03 | 26.94        | 26.87 | 0.16          | 0.16 | 1.05          | 0.32  |
| 전자·정밀기기     | -1.78         | 9.53 | 16.65        | 29.46 | 0.15          | 0.12 | 10.58         | 8.01  |
| 전기장비        | 2.57          | 4.01 | 21.36        | 23.78 | 0.13          | 0.13 | -3.97         | 3.20  |
| 기타 기계·장비    | 5.56          | 6.13 | 23.40        | 25.60 | 0.16          | 0.16 | 1.39          | 4.29  |
| 운송장비        | 6.57          | 4.20 | 23.93        | 22.08 | 0.10          | 0.11 | 4.08          | 2.92  |
| 기타 제조업      | 3.85          | 6.20 | 26.00        | 31.69 | 0.16          | 0.16 | 2.05          | 2.22  |
| 전기·가스·증기    | 0.51          | 2.53 | 8.36         | 10.88 | 2021 0.07     | 0.06 | 5.46          | 3.08  |
| 수도·하수·폐기물   | 6.38          | 6.83 | 30.73        | 30.48 | 0.22          | 0.21 | -0.39         | 1.65  |
| 건설업         | 3.44          | 4.46 | 28.79        | 29.72 | 0.33          | 0.30 | -3.78         | 0.82  |
| 도소매업        | 5.18          | 5.54 | 20.19        | 20.84 | 0.27          | 0.27 | -1.46         | 2.70  |
| 운수·창고업      | 3.21          | 2.99 | 16.47        | 16.01 | 0.18          | 0.19 | 8.79          | 5.29  |
| 숙박·음식점업     | 2.57          | 1.23 | 23.09        | 21.79 | 0.17          | 0.18 | -1.47         | 0.94  |
| 정보통신업       | 4.10          | 6.59 | 28.96        | 33.30 | 0.22          | 0.19 | 0.53          | 4.13  |
| 부동산업        | 1.52          | 2.25 | 3.73         | 4.97  | 0.09          | 0.09 | 1.99          | 1.98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 3.61          | 5.41 | 35.00        | 45.53 | 0.30          | 0.31 | -1.45         | 2.69  |
| 사업지원서비스     | 3.89          | 4.56 | 63.41        | 86.45 | 0.46          | 0.50 | 0.50          | 4.68  |
| 교육서비스       | 3.65          | 4.15 | 43.00        | 46.21 | 0.56          | 0.58 | 1.18          | 1.72  |
| 보건·사회복지     | -             | -    | -            | -     | 0.41          | 0.42 | 3.83          | 6.24  |
| 예술·스포츠·여가   | 5.69          | 4.42 | 14.71        | 13.11 | 0.24          | 0.25 | 2.54          | 2.26  |
| 공공행정·기타서비스  | -             | -    | -            | -     | 0.43          | 0.45 | 1.96          | 2.52  |
| 제 조 업       | 3.58          | 6.79 | 20.25        | 24.21 | 0.13          | 0.12 | 4.30          | 3.50  |
| 경 공 업       | 5.29          | 6.43 | 24.11        | 25.90 | 0.12          | 0.12 | 2.45          | 1.42  |
| 중화학공업       | 3.29          | 6.85 | 19.70        | 23.92 | 0.13          | 0.11 | 5.41          | 3.77  |
| 전 산 업       | 3.24          | 5.02 | 18.80        | 21.52 | 0.25          | 0.24 | 2.00          | 3.00  |

주 : 1) 평균은 경영자산영업이익률·경영자산투자효율의 경우 2010~2023년,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경우 2010~2022년,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의 경우 2010~2024년 기준임

2)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및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전년도 실질GDP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

3)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 실질GDP증가율 기준이며, 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의 단순평균임. 경제활동별 GDP 통계에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금액의 기준인 총부가가치(기초가격)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년 증가율은 2.06%이고 증가율 평균은 3.07%로, 위와 비슷함

4) 평균 계산시 이상치는 제외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종희(2018), “은행의 산업별 대출집중과 초과대출, 신용위험간의 관계 분석”, 산업  
경제연구 제31권 제3호
- 류창훈 · 최신 · 권규빈(2024),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24-12호
- 장태윤 · 김남주 · 손윤석(2025),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BOK 이슈노트 제  
2025-14호
- 정승원(2007), “한국의 산업금융의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 대출집중도를 사용한 예금  
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제조업 업종별 대출에 대한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정승원 · 권구복(2015), “국내 산업구조 개선 관련 지표 분석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17호
- 한국은행(2024), “2023년 기업경영분석”

### [영문자료]

- Andrieş, Alin Marius, Steven Ongena, and Nicu Sprincean(2025), “Sectoral  
Credit Allocation and Systemic Risk”,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Vol. 76
- Bank of Korea(2024), “Sectoral Credit Shifts and Potential Issues in Economic  
Growth”, *BIS Papers*, No. 148
- Jaramillo, Fidel, Fabio Schiantarelli, and Andrew Weiss(1993), “The Effect of  
Financial Liberalization on the Allocation of Credit: Panel Data Evidence  
for Ecuado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No. 1092
- Levine, Ross(2005),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Aghion,  
Philippe, and Steven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 1A
- Mian, Atif, Amir Sufi, and Emil Verner(2017), “Household Debt and Business  
Cycles Worldwid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32
- Müller, Karsten, and Emil Verner(2024), “Credit Allocation and Macroeconomic

Fluctua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91

Nayyar, Deepak(2017), “Development Banks and Industrial Finance: The Indian Experience and its Lessons”, Noman, Akbar, and Joseph E. Stiglitz Eds., *Efficiency, Finance, and Varieties of Industrial Policy: Guiding Resources, Learning, and Technology for Sustained Growth*

Zeile, William John(1993), “Industrial Targeting, Business Organization, and Industry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public of Korea, 1972-1985”, Ph.D. Dissertation(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